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정우락*

차례

1. 머리말
2. 강안인식과 강안학의 개념
3. 강안학으로서의 고령 유학
4. 고령 유학의 특징과 전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고령 유학의 전반적 성격과 특징, 그리고 전망을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고령의 지리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江岸學’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통해 영남 유학의 성격을 시론으로 살핀 다음, 거기에 입각하여 고령 유학의 특징을 구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퇴계학과 남명학을 중심으로 영남학을 읽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나아가 한강이나 금강 등 전국적 범위의 강안학을 고령지역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江岸’이라는 용어는 영남지역의 詩歌문학적 특성을 살피면서 제출되어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유학사상사를 새롭게 이해하자는 쪽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즉 강좌의 退溪學派와 강우의 南冥學派로 양분되던 영남학을 강안지역의 寒旅學派를 다시 설정하여 소통과 화합의 영남학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이니, 강안학은 16세기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 상주에서 창원에 이르는 공간적 범위, 유학사상이라는 학문적 범위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강을 중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심으로 한 한국학 전반을 새롭게 이해하는 구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강안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리학이 유입되었고 이후 사림과가 성장하였다. 길재나 김숙자와 김종직, 그리고 김굉필이 강안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기에 족하다. 고령지역은 김숙자가 현감직을 수행하면서 초기 사림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김종직의 후손이 살면서 사림과 着根의 한 표본이 되었다. 강안학의 특징은 기호학과 영남학, 혹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會通性, 박학에 바탕 한 실천정신을 지닌 實用性,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보된 獨創性을 들 수 있다. 강안지역에 위치한 고령지역은 이 같은 강안학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도 고령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회통성의 경우 고령 유학은 畿嶺學의 회통성보다 退南學의 회통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퇴남학의 회통성에서도 남명학 쪽으로 다소 경사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남명학의 저류와 그 발전적 면모를 통해 고령 유학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천정신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병활동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령 유학이 지닌 최대의 특징이다. 그리고 독창성은 朴而章의 양명학 수용 가능성과 서양철학 도입을 통한 李寅梓의 유교개혁사상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며 고령 유학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 고령지역의 강안학적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 역동적 상생관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응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강안학, 낙동강 연안, 고령 유학, 기호학, 영남학, 퇴계학파, 남명학파, 한려학파, 회통성, 실용성, 독창성

1. 머리말

죽령과 조령의 남쪽을 의미하는 ‘嶺之南’으로서의 영남은 그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영남문화라 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이룩해 왔다. 영남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뚜렷한 경계로 하여 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

립시키고, 또한 지역 안으로는 낙동강이 흘러 독립된 유역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함께 가야를 병합한 신라의 문화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지역에 비해 통일성과 일체감이 강하다. 특히 낙동강은 다양한 지류를 합류시키면서 본류를 형성하고 있어 문화적 통일성을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영남을 찬양해 마지않았던 李翼(星湖, 1681~1763)은 이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지금 온 나라 가운데서 五倫을 갖춘 지역을 찾자면 오직 이 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산천의 형세로 증명할 수 있다. 대체로 영남의 큰 물은 낙동강인데, 사방의 크고 작은 하천이 모두 모여들어 한 방울의 물도 밖으로 새어 나가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이와 같으면 그 산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 인심이 한데 모이게 하는 것이니, 부르면 반드시 화답하고, 일을 당하면 힘을 합치며, 儒賢이 대대로 일어나 스스로 聲教를 이루어서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의 말기에 오직 신라가 통일하여 1천 년을 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인심이 흩어지지 않는 까닭이 아니겠는가?¹⁾

이 자료는 이익이 유가의 오류가 영남에 제대로 전해지는 이유를 나름대로 유추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거로 인심의 통일을 들고 있다. 영남의 인심은 한데 모여 부르면 화답하고 일이 있을 때는 힘을 합쳐 그것을 수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영남의 인심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이유를 자연지리 내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즉 자연지리적 측면에서는 사방의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하나의 강을 이루고, 역사지리적 측면에서는 신라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남

1) 李翼, 「嶺南五倫」(『星湖僊說』經史篇), “今環域之中, 求五倫備具之鄉, 惟此一區, 是野其故何也? 山川風氣可驗. 凡嶺南之大水, 曰洛東, 四圍群川鉅流微滌一齊合同, 無一點外泄, 其水如此, 其山可知. 此爲衆情素聚, 有倡必和, 當事則併力加之. 儒賢代興, 自爲聲教, 不可以嬗變也. 是以, 三國之際, 惟羅卒能統三, 傳世一千, 豈非人必之不渙耶?”

은 신라문화를 계승하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인심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중요한 도덕률인 오륜이 잘 계승된다고 본 것이다.

이익은 낙동강에 모여드는 사방의 지류를 통해 영남의 통일된 인심을 직 관하고 있다. 사방의 인심이 낙동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비로소 통일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의 관점과는 반대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을 좌우 혹은 상하로 나누어보려는 시각이 있어왔다. 중종 14년(1519)과 선조 15년(1592)에는 경상도 지역이 너무 크다고 여겨 아예 서울에서 보아 동쪽을 좌도로 서쪽을 우도로 구분하기도 했다. 鄭慶雲(孤臺, 155~?)이 『孤臺日錄』에서 ‘영남을 둘로 나누어 좌우도라 하였는데, 순무어사 徐渚이 승진하여 右巡察使가 되었다.’²⁾라고 하여 전쟁기에 영남좌우도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알게 하기도 한다.

정치사상사적 측면에서 볼 때, 강을 중심으로 영남을 둘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16세기 이후 李滉(退溪, 1501~1570)과 曹植(南冥, 1570~1572)이 학단을 이끌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퇴계학파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에, 남명학파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에 거점을 마련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화합하면서 독특한 영남의 유학사상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강을 사이에 둔 대립은 鄭仁弘(來庵, 1536~1623)이 『남명집』을 간행하면서 그 말미에서 이황이 소식을 두고 한 비평을 공개적으로 변칙하면서 시작되었다. 정경운은 그의 일기에서 ‘듣건대 江左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來庵先生을 공격하고자 하였는데, 趙月川이 굳게 금하여 중지시켰다고 한다’³⁾고 하여 당시의 사정이 간단하지 않았음을 기록해 두고 있다.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갈등의 관계를 지속하지만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2) 鄭慶雲, 『孤臺日錄』 乙未年(1595) 3月 12日條, “以嶺南, 分爲左右道, 巡撫御史徐渚, 升爲右巡察.”

3) 鄭慶雲, 『孤臺日錄』 乙巳年(1605) 12月 8日條, “聞江左儒生上疏, 欲攻來庵先生, 趙月川, 固禁中止.”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예컨대 명종 20년(1565) 8월 權審行(聚奎齋, 1517~1579)을 중심으로 한 이황의 제자들과 金宇宏(開巖, 1524~1590)을 중심으로 한 조식의 제자들이 안동의 京在所에 모여 보우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하고, 나아가 성균관 유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나가버리는 空館과 대궐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보우의 목을 벨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 보조를 같이한다. 영남학파의 이 같은 노력으로 윤원형과 보우는 처단되고 척신정치는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공론정치는 이로써 시작될 수 있었다.⁴⁾ 여기서 우리는 통합된 영남의 저력을 유감없이 확인하게 된다.

이익이 관찰하고 있듯이 낙동강은 영남의 내륙에서 흘러드는 수많은 지류에 의해 만들어진 한 줄기의 강이다. 분리의 강이 아니라 소통의 강이며 통합의 강이라는 것이다. 영남은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 강좌의 仁과 남명학파를 중심으로 한 강우의 義가 하나로 모여 仁義로 호른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의 좌우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낙동강에 의해 구분되는 안동이나 진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의 유학사상 읽기를 넘어, 오히려 낙동강에 의해 통합되는 성주·고령·대구 등 江岸地域을 중심으로 영남의 유학사상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본 논의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 하겠다.

강안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유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고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吉再의 맥을 이은 金叔滋 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남 사림파의 성장에 더없이 중요한 지역이다.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접이지대로 이황과 조식의 공동 제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퇴계학과 남명학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고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강안학'이라는 용어를 새로 상정하며 그 타당성을 따지고 이에

4) 이에 대해서는 설석규, 「경의검의 또 다른 주인공-개암 김우평」(『선비문화』 5, 남명학연구원, 2005)에 자세하다.

기반하여 강안학의 성격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고령 유학과 강안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마지막으로 고령 유학의 특징과 전망을 제시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고령 유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본고는 영남 유학사상사 읽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자는 측면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시론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논의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영남 유학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낙동강을 중심에 두지만 영남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강이나 금강 등 우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강 연안 지역으로 연구의 시야를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는 영남학의 특성과 맞물려 있으면서도 여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하겠다.

2. 강안인식과 강안학의 개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화합의 영남학을 읽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용어개발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과 그 연안의 학문을 의미하는 ‘강안학’이라는 용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강안학’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영남학을 새롭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관련 연구자 사이에서 이미 있어온 터다. 그리고 일부 적용이 되기도 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낙동강과 그 연안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안학의 개념과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이로써 강안학에 대한 연구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강안지역에 대한 인식

낙동강은 영남지역에서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총체적 의미를 지닌다. 그 유역의 면적은 여러 도에 걸쳐있는 한강보다 약간 뒤지는 23,895km²이지만, 길이는 525km로 남한에서 제일이다. 이 강은 순흥의 소백산, 문경의 꽃갑천, 청송의 보현산 등 세 갈래의 물을 받아, 상주에서 비로소 낙동강 본류가 되는데, 본류는 영남지역만을 관통하고 있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통해 낙동강이라는 이름의 연원과 그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

(가) 洛水의 물은 태백산 黃池에서 나와 급하게 수백 리를 흘러 上洛의 동쪽에 이르러서야 그 세력이 점점 커진다. 물의 이름을 낙동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⁵⁾

(나) 경상도의 낙동강은 근원이 태백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한 도의 중간을 그었으며, 또 동쪽으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 태백산 황지는 산을 뚫고 남쪽으로 나와서 봉화에 이르러 매토친이 되며 ... 상주 북쪽에 이르러 송라탄이 되며 주의 동북 35리에 이르러 낙동강이 되고, 의성과 의흥의 여러 냇물은 군위와 비안을 거쳐 와서 합쳐진다. ... 남쪽으로 양산의 동원진이 되며, 또 남쪽으로는 세 갈래 물이 되어서 김해부 남쪽 취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⁶⁾

앞의 것은 李俊(蒼石, 1560~1635)이 「洛江泛月詩序」에서 언급한 것이

5) 李俊, 「洛江泛月詩序」(『壬戌泛月錄』張4), “洛水, 出太白之黃池, 奔流數百里, 至上洛之東, 而其勢漸大, 水之名洛東, 以是也.”

6) 李肯翊, 「地理典故」(『燃藜室記述』卷16), “慶尙道洛東江, 源出太白山, 東折西流, 又折而南流, 畫一道之中, 又東折南流而入海 ... 至尙州北, 爲松蘿灘, 州東北三十五里爲洛東江, 義城義興諸川, 經軍威比安來合 ... 又南爲梁山東院津, 又南爲三分水一 至金海府南鷺梁入海.”

다. 여기에 의하면 낙동강은 상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주는 예로부터 上洛, 商山, 洛陽 등으로 불려왔는데⁷⁾ 낙동강은 바로 '상락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낙동강 700리라고 할 때는 바로 상주의 낙동에서 시작한 길이이다. 뒤의 것은 李肯翊(燃藜室, 1736~1806)이 『지리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낙동강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알게 한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산의 황지이며,⁸⁾ 여기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남하하다가 안동부근에 이르러 반변천 등을 만나면서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고, 점촌 부근에서 내성천을 합하며 다시 남쪽으로 흐른다. 이 강이 마산과 진해의 산지에 막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마침내 부산의 서쪽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든다. 대체로 영남의 列邑을 'ㄷ'자로 흐르며 지나간다.

낙동강은 영남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포괄적으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水運을 통해 각종 물품들이 교역되면서 이와 관련된 저층의 문화를 만들었고, 주변의 승경을 통해 선비들은 또한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성취하였다. 수많은 농요나 탈놀이가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詩會를 통한 선유문화 등도 다양하게 발달했다. 하회탈놀이나 이준 등의 『洛江泛月詩』,⁹⁾ 權應仁(松溪, 1521~?) 등의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8 尙州牧條에 의하면, 상주는 이 밖에도 '上州·沙梁伐·沙伐·陀阿·歸德軍'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중환은 『擇里志』 「慶尙道」조에서 '상주는 일명 洛陽이며, 조령 밑에서 있는 하나의 큰 도회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8) 황지에 모여드는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서 정선군 고한읍으로 넘어가는 곳에 싸리재를 만나게 된다. 싸리재를 중심으로 저쪽 너머에는 한강의 발원지가 있고, 이쪽 너머에는 낙동강의 발원지 너덜샘이 있다. 황지에서 시작하면 낙동강은 1,300리가 된다. 현재 황지에는 '洛東江 千三百里 예로부터 시작되다'라는 커다란 표석이 세워져 있다.

9)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개최한 낙강시회는 李俊 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시회는 1607년부터 1778년까지 171년 동안 총 8회 시행되었다. 이때 지은 시를 누적해서 기록한 것이 『壬戌泛月錄』이다. 이에 대해서는 權泰乙, 「洛江詩會研究」(『尙州文化研究』 2, 상

「洛江同舟錄」, 이른바 낙강 7현의 「泛舟洛江分韻」,¹⁰⁾ 鄭章(晩悟齋, 1569~1614) 등의 「追次洛江韻」, 徐思遠(樂齋, 1550~1615) 등의 「琴湖江同舟錄」 등은 모두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었다. 이처럼 낙동강은 영남인들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였으며, 여기서 나아가 낙동강과 그 연안을 중심으로 영남인의 강한 자부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음 자료를 검토해 보자.

(가) 만력 정사(1617년) 7월 20일 맑음. 닭이 세 번 울자 한강선생이 肩輿로 출발하였는데 먼동이 틀 무렵 枝巖 앞에 도착하여 배에 올랐다. 蔡夢硯·郭永禧·李天封·李彦英·李潤雨·裊尙龍·李命龍·柳武龍·李蘭貴·李壘·鄭天澍 등이 따랐다. 달성백 李燾이 배에 들어와 인사하고 내려갔다. 朴忠胤·李文雨·都聖兪·李陸·李綜·李倫·金燾·李興雨·李道昌 등이 뱃머리에서 인사하였다. 배는 도동서원의 것이었다.¹¹⁾

(나) 내가 들으니, 中夏의 절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砥柱中流라는 네 글자를 伯夷·叔齊의 사당 아래 흐르는 물가에 우뚝이 솟아 있는 돌에 크게 새겼다 한다. 우리 동방의 절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그 네 글자를 模寫하여 선생의 묘소 아래인 洛東江의 江岸에 비석을 세우고 이것을 새겨 걸었다. 이는 진실로 천하의 큰 한계를 세우고 만세의 綱常을 보전한 것이 중하에는 백이이고 우리 동방에는 선생이기 때문이다.¹²⁾

주문화연구소, 1992)에 상세하다. 권태일은 최근 이를 번역해서 『洛江泛月詩』(아세아문화사, 2007)를 발간한 바 있다.

- 10) 李起春(玉山, 1541-1597) 등 7인이 참여하였으며, 1589년(선조 22) 5월에 이루어졌다. 당시의 分韻은 '萬頃蒼波欲暮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서 다룬다.
- 11) 鄭在夔, 「蓬山浴行錄」, "萬曆丁巳七月二十一, 晴. 鷄三鳴, 寒岡先生, 以肩輿發行, 味爽至枝巖前, 乘船. 蔡夢硯·郭永禧·李天封·李彦英·李潤雨·裊尙龍·李命龍·柳武龍·李蘭貴·李壘·鄭天澍等從. 達城伯李燾, 入船拜辭而下. 朴忠胤·李文雨·都聖兪·李陸·李綜·李倫·金燾·李興雨·李道昌等拜辭于船頭, 船則道東院船也."
- 12) 張顯光, 「治隱先生文集跋」(『旅軒集』 卷10, 『韓國文集叢刊』 60, 183쪽), "聞中夏之慕節義者, 刻砥柱中流四大字於夷齊廟之下抗流之石, 而又吾東之慕節義者, 摹其四字, 立碣刻揭于先生墓下洛江之岸. 則誠以立天下之大閑, 存萬世之綱常者, 中夏而伯夷, 我東而先生也."

(가)는 정구의 후손 鄭在夔(省齋, 1851~1919)가 편찬한 『蓬山浴行錄』¹³⁾의 첫머리이다. 이 책은 정구가 75세 되던 해 풍비를 치료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1617년 윤7월 20일에서 9월 5일까지 45일간 동래온천을 다녀온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구가 가는 길에 마중하기도 하고 배웅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일반 선비들도 무수히 많았다. 모여든 사람들은 단순히 노학자의 요양길을 보기 위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히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강학파를 짐작하게 된다. 한강학파는 장현광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寒旅學派를 성립시킨다. 강안지역에는 이 학파가 퇴계학과 및 남명학과와는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정구의 제자 張顯光(旅軒, 1554~1637)이 쓴 「治隱先生文集跋」의 일부이다. 장현광은 이 글에서 吉再(治隱, 1353~1419)의 절의정신을 제시하며 강안지역의 선비정신을 드높였다. 그는 길재의 정신을 ‘지주중류’에 비유하였는데, 낙동강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비유이다. 이뿐만 아니다. 그는 盧更任의 제문을 쓰면서, ‘군은 낙동강 언덕에 작은 정자를 지으니, 내 원당의 寓居와 서로 마주하였다.’¹⁴⁾면서 강안에 세운 정자를 특기하기도 했다. 장현광이 이처럼 강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영남의 강좌와 강우 지역의 중간 접이지대를 인식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길재에게서 흘러내리는 강안지역의 정신사를 염두에 둔 것은 틀림이 없다.

정구가 낙동강을 따라 육행의 길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장현광이 낙동강 연안에 길재를 기리는 비석이 서자 절의정신을 생각하면서 강안지역의 정신사를 부각시켰다. 정구와 장현광을 중심으로 한 한려학파는

13) 이 책은 정구의 제자 이윤우의 기록과 밀양 사람 노극홍의 집에 있던 초고를 정구의 후손 정재기가 세밀하게 대조·검토하여 1913년에 편찬한 것이다.

14) 張顯光, 「祭盧翊景任文」(『旅軒集』 卷11, 『韓國文集叢刊』 60, 212쪽), “君構洛江岸之小亭, 與吾元堂之寓相對矣.”

이처럼 낙동강과 그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영남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퇴계학과 및 남명학과와 변별되는 강안 지역의 특수성을 자각한 것은 근대학문 이후의 일이다. 이 문제는 李東英(1933~200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에 주목하기로 한다.

嶺南을 上下로 구분할 경우 上道를 嶺左라 하고, 下道를 嶺右라 하면 기왕의 명칭이요, 그래서 左右로 區劃한 연후에 學脈과 文化環境으로 볼 때 嶺左右의 中間地域이 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의 명칭을 ‘嶺中’이란 것으로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이 緩衝的 接脈區域의 특성을 감안하여 江岸이라 命名하였다.¹⁵⁾

이동영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의 嶺左詩歌, 오른쪽의 嶺右詩歌, 그리고 시조문학상 뚜렷이 변별되는 그 사이의 완충지역을 새롭게 설정하여 江岸詩歌라 하며 조선조의 영남시가를 이해하였다. 성주와 고령, 칠곡 등 강안지역이 지닌 특수한 국면을 뚜렷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영남의 시가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긴 하지만, 강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영남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보 진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강안 지역에 대한 사상사적 자각이 새롭게 일어나기도 했다. 우선 박병련의 다음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남을 낙동강을 중심으로 江左, 江右로 나누고, 학파도 강좌를 退溪學派, 강우를 南冥學派로 보는데, 여기서 필자가 江岸地域이라 칭하고자 하는 것은 寒岡 鄭述, 旅軒 張顯光 등 소위 文穆淵源 또는 寒旅學派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영남이 강좌, 강우로 대별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지만 퇴계와 남명 모두를 수용하면

15) 李東英,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 釜山大學校出版部, 1984, 308쪽.

서 독특한 학풍을 형성하기도 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주, 고령, 현풍, 창녕, 영산, 의령, 함안, 밀양, 청도, 김해, 창원지역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초기에는 남명학파의 핵심지역이었으나, '光海君 復立謀議'사건에 연루되어 세력이 와해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지역에서는 寒岡을 매개로 汎退溪學派로 흡수되었으나 여러 가지 미묘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¹⁶⁾

박병련은 1631년(인조 9년) 2월에 있었던 '光海君 復立謀議'사건을 통해 남명학파의 존재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강안지역을 특별히 주목하였다. 이는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의 중간 접이지대에 위치한 한려학과(문목연원)가 지니는 위상을 분명히 설정한 것이며, 이동영이 막연하게 구상하였던 '학맥과 문화환경'을 영남학파의 사상사적 맥락에서 읽으려 한 데서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그는 이에서 더욱 나아가 강안지역 범 남명학파의 혈연적 연대와 학문적 연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점검해 봄으로써, 당시 남명학파의 사회적 토대를 살피기도 했다.¹⁷⁾ 박병련의 이 같은 논의는 강안지역의 남명학파를 정치사상사적 시각에서 주목한 것이지만, 강안지역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강안지역은 정우락에 의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성주 출신인 金聃壽(西溪, 1535~1603)의 전쟁체험과 그것의 문학적 대응을 살피면서 강안지역을 주목하고, 이 지역은 유학사상사적 측면에서 강우의 남명학과 강좌의 퇴계학을 통섭한 측면과 함께 현실대응에 민감하면서도 성리학적 사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적 국면이 있다¹⁹⁾고 했다. 여기서 나아가 밀양 출신인 盧相稷(小

16) 朴丙鍊, 「光海君 復立謀議 事件으로 본 江岸地域 南冥學派」, 『南冥學研究論叢』 11, 南冥學研究院, 2002, 230쪽.

17) 朴丙鍊, 「南冥學派와 嶺南 江岸地域 士林의 혈연적 연대」, 『南冥學報』 4, 南冥學會, 2005.

18) 이밖에도 밀양·창녕·청도·김해·함안·의령·성주·칠곡 등을 강안지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 향촌지배층의 형성과 변화를 살핀 논의가 있다. 박병련 외,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립』, 예문서원, 2004.

訥, 1855~1931)의 학문적 특징을 살피면서 강안학이 지닌 영남적 보편성과 강안적 특수성을 함께 떠올리고 지역적 범위와 함께 학문적 특성을 寒岡淵源의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논의하기도 했다.²⁰⁾ 이는 강안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²¹⁾

설석규 역시 이 대열에 동참하였다. 그는 강안학의 학과적 성격에 주목하고 특히 김담수를 중심으로 강안학과의 실학적 풍모를 찾으려 하였다.²²⁾ 이 같은 구상은 강안지역 학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강안지역 사람들에 의해 강좌와 강우지역 사람들이 지니는 내부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고, 숭한 정치적 기복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유지하였다면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서 더욱 나아가 장현광의 '경위설'을 통해 영남학의 통합적 논리구조를 유추하기도 했다.²³⁾

이상과 같이 낙동강 연안지역을 '강안'이라 명명하면서 영남학을 새롭게 읽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 지역의 시가문학적 특성을 살피면서 제출된 '강안'이라는 용어는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영남의 유학사상을 이해하는 데로 확대 적용되었다. 즉 강좌의 퇴계학과와 강우의 남명학과로 양분되던 영남학을 강안지역의 한려학파를 다시 설정하여 소통과 화합의 영남학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강안지역 → 강안학 → 강안학과'로 심화되어 가던 이 같은 인식은 이 분야 연구의 가능성을 새롭게 타진했다는 측면에서 시

19) 鄭羽洛, 「西溪 金聃壽의 戰爭體驗과 그 文學的 對應」, 『嶺南學』 10, 嶺南文化研究院, 2006, 378쪽.

20) 鄭羽洛, 「嶺南儒學의 傳統에서 본 小訥 盧相稷 學問의 實踐的 局面들」, 『南冥學研究』 24, 南冥學研究所, 2007.

21) 이밖에도 정우락은 「강안학, 하나의 영남학을 위하여」(경북대신문, 2008년 4월 7일자)에서 강안학을 통해 새롭게 영남읽기를 강조한 바 있다.

22) 薛錫圭, 「江岸學派의 실학적 풍모를 지킨 徵士-西溪 金聃壽」,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2007.

23) 薛錫圭, 「旅軒學과 江岸學」, 『旅軒學報』 15, 旅軒學研究會, 2008.

사하는 바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격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시도되지 않았다. 이것은 강안학 연구가 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강안학의 개념과 범위

강안학을 통해 영남학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낙동강 연안지역이 지니는 사상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 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용어를 중심으로 영남학을 설계하고자 할 때 이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강안학이 ‘江과 岸과 學’을 조합한 용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요소의 특징적 국면에 대한 파악이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제 ‘강’과 ‘안’, 그리고 ‘학’에 지니는 의미망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첫째, ‘江’에 대해서다. 강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는 지대하다.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큰 강을 끼고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강이 인류에게 부여되는 의미는 생명의 젖줄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는 형성되어왔다. 즉 우리 민족의 일상성과 역사성은 이들 강의 연안을 중심으로 생성·발달해 왔다는 것이다. 강이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류가 수송되는가 하면, 전쟁 등 민족적 위난 역시 이들 강을 오르내리며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강에 대한 이해는 민족에 대한 이해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남의 강인 낙동강 역시 영남의 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적 기능을 하였다.

특히 낙동강이 지닌 일체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영남의 정체성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이나 금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강이 여러 도를 거치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강들이 낙동강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강을 통해 물자를 교환하고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영남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다. 유교적 측면에서 볼 때, 성리학의 수입과 발달 역시 이 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만인소나 의병들의 활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통일된 영남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낙동강은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岸'에 대해서다. 안은 연안을 의미하므로 낙동강 연안이 된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상류의 태백·봉화·안동·예천·문경지역, 중류의 상주·의성·구미·김천·칠곡·성주·대구·고령·합천지역, 하류의 창녕·영산·의령·함안·밀양·창원·양산·김해·부산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편의상 상류의 안동권, 중류의 대구권, 하류의 부산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안동권은 낙동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대구권은 낙동강의 본류가 형성되며 '낙동'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부산권은 낙동강이 끝나는 지역이며 해양문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낙동강 연안이 다양한 지역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들 지역을 모두 강안학에서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퇴계학과와 남명학과를 중심으로 한 영남유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이 용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퇴계학과는 경상 좌도로 낙동강 상류에서, 남명학과는 경상 우도로 낙동강 하류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이 두 학파가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유교문화를 만들어 갔던 사실을 고려할 때 낙동강 중류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寒旅學派의 중요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하는 상주지역을

강안학의 상한선으로, 정구가 강학활동을 했던 관해정이 있는 창원을 그 하한선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안학의 주요지역은 상주·의성·구미·김천·칠곡·성주·대구·고령·합천·창녕·영산·의령·함안·밀양·창원지역이 된다.

셋째, '學'에 대해서다. 학은 학문을 의미하니 그 영역이 실로 다양하다. 文史哲이 그것일 수도 있고, 儒佛仙이 그것일 수도 있으며 근대 이후의 학문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낙동강 연안에서 향유된 모든 학문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광의로 학문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강안학은 '유학'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강안학은 낙동강 연안의 유학을 중심에 두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역의 유학사상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며, 영남학 내지 한국학에 강안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따지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낙동강 연안지역, 즉 강안지역은 남명학과 퇴계학과가 강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대립할 때는 그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지역적 특성상 정구와 김우옹, 오운과 김면 등과 같이 이황과 조식을 공동의 스승을 삼은 문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감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보면 영남 유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즉 퇴계학과 남명학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면모를 지니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정의 이러한 염두에 둔다면 강안지역의 유학사상은 영남학에 있어 하나의 통합논리를 만들 수 있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강안학을 낙동강 연안의 유학사상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간적 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용어가 지닌 편의성과 특수성을 인식하지는 것이다. 낙동강 연안지역의 학문적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영남을 강좌의 퇴계학과와 강우의 남명학과로 나누어 이해하는 일반론을 반성하면서 그 중간지역을 새롭게 설정하면서부터 시

작되었다. 이로 볼 때 이황과 조식 이후, 즉 16세기 이후로 강안학의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강안학의 역사성을 따질 때는 역사·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시대를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즉 16세기를 상한선으로 두면서도 시간적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강안학은 '16세기 이후 낙동강 연안의 유학사상'으로 개념과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이때 낙동강 연안이라 함은 상주에서 창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강안학은 16세기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 상주에서 창원에 이르는 공간적 범위, 유학사상이라는 학문적 범위를 포괄한 개념이다. 낙동강은 영남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라와 가야의 경계이자 통합의 역할을 했고, 이후 삼국이 통일신라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주역을 한 통일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전반을 새롭게 이해하는 구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²⁴⁾

3. 강안학으로서의 고령 유학

16세기 이후 낙동강 연안의 유학사상을 의미하는 강안학은 다양한 특징이 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영남이 다른 문화권의 유학사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듯이, 영남문화 내에서 발견되는 강안지역의 유학사상도 강좌나 강우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다소의 편차도 발생한다.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상주지역은 퇴계학과 밀착되어

24) 강안학이 한국적 범위에서 연구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협의의 강안학은 '영남 강안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 연안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업적은, 金宅圭 외, 『洛東江流域史研究』(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修書院, 1996)와 유명기 외, 『낙동강 유역의 사람들과 문화』(역락, 2007)를 들 수 있다.

있으면서도 기호지방과 일정하게 맥락이 닿아 있고, 성주지역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절충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며, 고령지역의 경우 남명의 매부가 살았던 곳으로서 남명학적 요소가 더욱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이 같은 동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강안학이 지닌 특성을 가설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고령 유학의 성격을 시론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1) 사림파의 성장과 고령에서의 着根

영남지역에는 한국 유학의 주맥이 흐르고 있다. 신라에 유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왕대에 ‘국학’을 설치하고, 유학으로 무장한 육두품 출신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한계가 있긴 했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여말의 성리학 유입기에는 영남 사람인 安珦(晦軒, 1243~1306)과 鄭夢周(圃隱, 1337~1392) 등이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성리학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鄭道傳(三峰, 1342~1398)과 權近(陽村, 1352~1409) 등 영남출신 관료문인들도 조선의 이념적 바탕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했다.

15세기에 들어 金宗直(佔畢齋, 1431~1492)과 그 학단이 훈구파와 대립하면서 영남사림파를 성립시켰고, 16세기를 거치면서 이황과 조식이 일련의 학단을 이끌면서 영남유학은 꽃을 피웠으며, 이들의 제자 鄭述(寒岡, 1543~1620)가 許穆(眉叟, 1595~1682)에게 실용학문을 전수하면서 근기남인들의 실학을 성립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가 유입되자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李炳憲(眞庵, 1870~1940)은 조선의 공자교를 선도하여 유학의 새로운 복원론을 제창하면서 근대유학의 개혁사상을 천명하기도 했다.²⁵⁾ 이 같은 사정을 생각하면서 사림파가 고령지역에서 어떻게

25) 정우락, 「영남지역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 『퇴계학과 한국문화』 3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5, 215~225쪽 참조.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자.

주지하듯이 조선의 성리학은 1289년 고려의 충렬왕 때 순흥 사람 안향이 원나라를 왕래하면서 직접 朱子書를 베껴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성리학은 강안지역을 중심으로 그 맥이 흐르게 되는데, ‘東方理學之祖’로 불리는 정몽주는 인근의 영천 출신이었으며, 吉再(治隱, 1353~1419)는 강안지역의 주요 거점인 선산 사람이다. 이 같은 학맥이 역시 선산 출신의 金叔滋(江湖, 1389~1456)에게로 흐르고, 金叔滋는 그의 아들 金宗직에게 그 도통을 전하는데 역시 강안지역이 주요 활동무대였다. 더욱이 金宗직은 선산과 성주 등 강안지역에서 교수를 맡았고, 고려과 개령에서 金宗직을 수행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로써 길재의 유품이 강안지역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당시 金宗직은 고려의 東軒에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적이 있다.

伽椰千古地	가야국 천고의 땅,
文物更舒長	문물이 다시 펼쳐어 있네.
大寶光臨宇	대보는 천지에 빛나고,
雲霞映潤塘	구름과 노을은 개울과 못에 비치네.
壁詩驚杜白	벽에 걸린 시 두보와 이백을 놀라게 하고,
風俗擬羲黃	풍속은 복희와 황제시대에 비긴다네.
水勢龍旋顧	물의 기운은 용이 서려있는 듯하고,
山谷鳳下翔	산의 모습은 봉이 내려앉는 듯하네.
人皆能射御	사람들은 모두 육례에 능하고,
家復足糴梁	집은 다시 양식이 풍족하다네.
何用絃歌政	어찌 絃歌의 정치를 하리오?
無爲望帝鄉	무위로 다스리며 帝鄉을 꿈꾼다네. ²⁶⁾

26) 『高靈縣邑誌』 「人物」條, 『邑誌』 一, 慶尙道 ①, 亞細亞文化社, 1982, 841쪽.

이 시는 김숙자가 당시 고령현감으로 부임한 후 그의 포부를 읊은 것이다. 그는 여기서 가야국의 번성한 문물과 복희·황제 시대의 선한 풍속, 훌륭한 산수 등이 고령에는 두루 있다고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제시한 ‘俗尙強武’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김숙자는 고령을 하나의 이상향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사람들은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율례에 능하고 집집마다 양식이 풍족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공자의 제자 子游가 武城을 다스릴 때 금슬과 시가로 예약의 정치를 폈으나 고령은 덕화가 잘 갖추어져서 ‘無爲而治’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숙자는 이처럼 고령을 통해 이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던 것이다.

김숙자의 아들 김종직 역시 고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그가 중앙정계로 진출하는데 있어서도 고령 토성으로 서울에서 관료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숙주의 후원이 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숙주의 손자 申用漚는 김종직의 문인이 되었고, 또한 김종직의 문인으로 고령 출신의 朴闇(搢翠軒, 1479~1504)은 신숙주의 손자 申用漚(松溪, 1463~1519)의 사위가 되었다. 이뿐 아니라 김종직은 金係行(寶白堂, 1431~1521)이 고령현감으로 좌천되었을 때 그에게 특별히 전별시를 지어주면서 옛날 아버지 김숙자를 모시고 고령에 있을 때를 떠올렸다. 두 수를 지었는데 첫째 수는 이렇다.

伽倻古滕薛	가야는 옛날 등나라·설나라와 같으니,
謫宦勝封畱	좌천이 畱 땅에 봉해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²⁷⁾
筍鱸供廚興	죽순과 생선은 주방의 흥취를 제공하고,
溪山與目謀	시내와 산은 눈과 함께 어울리네.
風淳眈保靜	풍속 순박하니 백성의 삶이 조용하고,

27) 장량은 漢高祖가 그를 齊 땅 3만 호를 봉하려 하자, 畱 땅에 봉해지면 죽하다면서 마침내 공명을 버리고 신선 赤松子를 따라 놀았다. 김종직은 이를 인용하면서 김계행을 위로한 것으로 보인다.

官冷屋廬幽	관청 한가하니 주거가 그윽하구나.
昔我趨庭處	내가 옛날 아버님 모시던 곳이라.
絃歌待子游	자유의 현가 소리가 기다려지는구나. ²⁸⁾

김종직은 이 시에서 고령이 ‘내가 아버지를 모시던 곳’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시를 떠올리고 있다. 일찍이 김숙자가 이곳에서 현감을 하면서 ‘어찌 絃歌의 정치를 하리요?’라고 했고, 김종직은 ‘자유의 현가 소리가 기다려지는구나’라고 했다. 詩句의 표면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덕화를 펼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김종직은 여기서 고령의 풍속을 지적하기도 했다. ‘風淳’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풍속으로 백성과 관리가 태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김종직은 김계행에게 최치원을 찾아 가야산 유람을 권하기도 했다. ‘儒仙의 자취를 찾아보고 싶거든, 가야산에 올라 유람해야 하리’²⁹⁾라 한 것이 그것이다. 최치원이 해인사로 들어가면서 고령의 揖仙臺와 孤雲亭에서 노닐었을 뿐 아니라, 碧松亭 중건 상량문을 짓기도 했다는 전언을 염두에 둔 것³⁰⁾이었다.

김종직의 제자 金宏弼(寒暄堂, 1454~1504)은 인근의 강안지역인 달성 출신이다. 鄭汝昌(一蠹, 1450~1504) 역시 이 강안지역에서 김굉필과의 道同志함으로 학문을 닦았다. 벽송정에 관한 이들의 시가 현전하는 것을 통해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종직 학단이 고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림 문화를 성장시켜갔다는 사실은 사림과의 발달에 있어 고령이 얼마나 중요

28) 金宗直, 「辛丑歲, 僕嘗記夢與金監察係行相遇事, 前年, 被恩命還京, 再與金君遇, 終不言夢事. 今年秋, 金君以事不容於朝, 出爲高靈縣監, 雖非程驛之任, 余之夢果有徵也. 遂語其事, 金亦大噓, 仍用前韻賦, 聊以驢行云」(『佔畢齋集』 卷18, 『韓國文集叢刊』 12, 348쪽).

29) 金宗直, 앞의 책, 같은 곳, “欲訪儒仙跡, 倂山峙上游.”

30) 『高靈縣邑誌』 「樓亭」條(『邑誌』 一, 慶尙道 ①, 亞細亞文化社, 1982, 837쪽), “揖仙臺·孤雲亭, 崔致遠所遊處, 曾古老相傳云, 亭之朞建, 在漢五鳳元年, 而重修時, 孤雲作上樑文, 今無所徵焉.”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 더욱이 김종직이 부친의 임지인 고령을 왕래하였고, 이후 후처로 합천 야로의 文氏를 맞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거하게 된 것도 중요하다. 그의 손자 대에 와서 야로와 고령지방에 강력한 가세를 유지했던 진주 하씨, 양천 최씨, 남평 문씨, 고령 박씨, 현풍 곽씨 등과 혼인하면서, 종손계는 그 5대손부터 고령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³¹⁾ 사림문화를 이 지역에 펼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안지역의 사림과는 선산의 길재에게서 시작되고, 그 도맥이 김숙자와 김종직 부자를 통해 전수, 다시 김굉필과 정여창 등에게 이어지면서 학맥을 유지하게 된다. 고령은 강안지역으로 이들의 주요한 활동무대가 되면서 사림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이 지역에서도 확실한 착근이 이루어졌다. 16세기를 거치면서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가 정립되면서 성리학은 안동과 진주 등 영남의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때로 양 학파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령을 위시한 강안지역에 거주하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황과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시면서 소통과 상생의 영남학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것은 강안학의 주요 과제이기도 했다.

2) 회통성－畿嶺學 및 退南學의 융합

낙동강 연안은 영남의 내륙에 비해 타문화의 흡수력이 훨씬 빠르다. 이것은 낙동강 물길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가 신속하게 전파 향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기호지방의 학문이 상주나 칠곡, 대구 등에서 영남학과 융합되면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른바 畿嶺學의 회통이 이루어지고

31)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113쪽 참조.

있었던 것이다.³²⁾ 이 뿐만 아니라 강안지역에 사는 선비들을 중심으로 이황과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시면서 退南學을 통섭하기도 했다. 즉 남북으로 기령학을 동서로는 퇴남학을 아우르는 회통성이 강안학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안학의 회통성을 먼저 다루고 이와 관련된 고령 유학을 다음으로 살펴보자.

먼저 기령학의 회통성에 대해서다. 강안지역은 영남의 내륙에 비해 기호지방과의 연맥성이 강하다. 조령은 경북 문경시와 충북 연풍군의 경계에 해당하는데,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갈 때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서울에서 경상도관찰사들이 부임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령을 경계로 한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이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동강의 본류가 시작하는 상주지역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안동의 퇴계학적 자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 힘이 많이 약화되었고 동시에 고개 너머의 기호학을 받아들이면서 회통적 강안학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강의 운반기능과 관련하여, 기호학이 물길을 따라 가장 빠르게 그 연안지역으로 전파·착근되었다. 영남지역 宋時烈(尤庵, 1607~1689)의 문인을 분석해 보면 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납득된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송시열의 문인 53명 가운데 44명³³⁾이 강

32) '畿嶺學'이라는 용어는 安朋彦(育泉齋, 1904~1976)에 의해 사용된 바 있다. 盧相稷(小訥, 1855~1931)의 묘갈명을 쓰면서 '蓋先生, 鎔冶畿嶺之學於一爐, 而會通之'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의 학문을 중심으로 말한 것인데, 曹兢燮(深齋, 1873~1933)도 이황 이후의 학문을 두 파로 나누고, '有嶺畿之二派, 嶺學精嚴, 常主於守經反約, 畿學宏博, 多急於應用救時.'라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적 측면을 '기령학'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제시한다.

33) 44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주(6명) : 李碩堅·李碩剛·李命鐸·李命鉉·李重夏·李重華, 상주(3명) : 成虎英·成晚徵·申權, 함창(3명) : 蔡錫壽·蔡河徵·蔡之沔, 선산(7명) : 李增華·李志奭·李東魯·沈若漢·李志遂·沈灑·李志洵, 대구(13명) : 李克泰·李克念·李克和·羅世鳳·徐惟遠·全克欽·全克明·全克初·全克敏·許誠·孫尙祖·朴振仁·朴紹遠, 삼가(4명) : 權鎔·權鑑·權緩·鄭友益, 하양(1명) : 宋得楠, 청도(3명) : 芮碩薰·朴之賢·朴太古, 인동(2명) : 張瑠·張榮達, 경산(1명) : 韓弘翊,

안지역에 살았기 때문이다.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황의 제자 가운데 중요한 문과를 형성하였던 柳成龍(西厓, 1542~1607)계가 독자성을 띠며 기령학을 회통시켜 갔다. 퇴계학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기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영남인은 유성룡의 제자 鄭經世(愚伏, 1563~1633)이다. 그는 예학과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퇴계학을 계승하면서도 리기설에 있어서는 이황의 互發說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여기서 나아가 송시열과 함께 서인의 종장으로 성장하는 宋浚吉(同春堂, 1606~1672)을 사위로 맞는다. 이 밖에도 강안지역에는 기호지방의 사림들과 소통하면서 기령학의 회통적 성격을 띤 사인들이 많았다. 예컨대, 성주의 鄭述는 李珥(栗谷, 1536~1584)와 일정한 학문적 교감을 하고 있었으며,³⁵⁾ 이이와 정구를 함께 사사한 李潤雨(石潭, 1569~1634)는 자신의 아호를 이이가 우거하고 있었던 석담으로 할 만큼 이이에 대한 특별한 존경을 표하였다.³⁶⁾

다음은 퇴남학의 회통성에 대해서다. 강안지역은 영남학 내부에서 퇴계학과 남명학이 회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퇴계학과는 낙동강의 상류 좌측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남명학과는 낙동강의 하류 우측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퇴계학과는 남진을, 남명학과는 북진을 모색하게 되었고, 중간 접이지대인 낙동강 중류의 강안지역에서 이황과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신 선비들을 중심으로 강의 좌우를 절충하고 통합하고자 했다.

의령(1명) : 權宇亨.

34) 김성운, 「영남의 유교문화권」, 『낙동강유역의 사람들과 문화』, 역락, 2007, 168쪽 참조.

35) 朴世采의 「跋寒岡先生甲申手帖」(『南溪集』 卷68)에 의하면, 정구가 1584년 1월 19일 이이에게 답서로 작성한 간찰 한 통을 입수하고 여기에 발문을 붙인다고 했다.

36) 강안지역에는 기호학파의 선현을 봉향한 서원도 다소 있다. 상주의 서산서원(김상용·김상헌 봉향)과 홍암서원(송준길 봉향), 김천의 춘산서원(송시열 봉향), 고령의 노강서원(송시열 등 봉향), 성주의 수덕서원(김창집 등 봉향), 합천의 옥계서원(이이 등 봉향) 등이 그것이다.

한려학파가 대표적이라 하겠는데, 이 학파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한 영남의 좌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선악이나 군자·소인 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성주지역을 주목해 보자. 이곳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이다. 黃俊良(錦溪, 1517~1563) 등 이황의 제자와 吳健(德溪, 1521~1574) 등 조식의 제자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만나면서 학문을 논했고, 정구와 김우옹 같이 이황과 조식 문하를 함께 드나드는 문인들도 많았다. 이황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지만 이 지역 출신으로 조식의 제자인 金聃壽(西溪, 1535~1603) 역시 전쟁을 맞아 예안지방으로 피신하면서 이황의 제자들과 교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퇴계학에도 심취한다. 즉 퇴남학의 회통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퇴남학의 회통성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정구이다. 그는 이황과 조식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居敬窮理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도 邑誌와 人物誌를 편찬하는 등 致用的 학문을 중시하였다. 여기서 퇴남학에 대한 한강학의 강한 회통성을 엿볼 수 있다.³⁷⁾

그렇다면 회통성이 고령지역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령학의 경우, 老江書院이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소재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서원은 1712년(숙종 3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송시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는데, 그 이후 權尙夏(遂菴, 1641~1721)·韓元震(南塘, 1682~1751)·尹鳳九(屏溪, 1681~1767)·宋煥箕(心齋, 1728~1807)를 추가 배향하였다. 이는 金昌集(夢窩, 1648~1722)을 봉향한 성주의 修德書院이나 李珥(栗谷, 1536~1584)를 봉향한 합천의 玉溪書院과 마찬가지로 강안지역 깊숙이 기호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영

37) 함안의 趙任道(澗松堂, 1585~1664) 역시 강안지역에서 퇴남학을 회통하고 융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許捲洙,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를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남명학연구』 1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에 자세하다.

남학을 중심에 두고 기호학을 일부 수용한 선비들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고령지역에서는 뚜렷하게 기령학을 회통한 선비가 나타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고령지역은 조식의 매부 鄭師賢(月潭, 1508~1555)의 고향이자 조식과 절친했던 벗 李希顔(黃江, 1504~1559)이 현감으로 있었던 곳이다. 이 때문에 조식은 「題鄭思玄客廳」에서 ‘가야 옛 나라의 산에는 무덤만 늘어서 있고, 月器 황량한 마을 없어진 듯 남아 있다’³⁸⁾라고 하면서 당시의 고령을 묘사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에 살았던 朴潤(竹淵, 1571~1572)의 정자인 죽연정에서 고령군 우곡면 월오리에 살았던 尹奎(月塢, 1500~?)의 시에 대한 차운을 남기기도 했다. ‘가야산 물이 멀리 백리를 흘러오니, 낙동강의 신은 너와 더불어 깊고 그윽하다.’고 노래한 「竹淵亭次文老韻」³⁹⁾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조식이 고령의 인사들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는 데 비해 이황이 고령을 중심으로 글을 쓰거나 시문을 남긴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3세부터 아홉 차례나 경남일대를 여행하면서 성주를 거쳐 고령과 합천을 지나 처가가 있는 의령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이 때 그는 가야산을 노래하며 최치원을 떠올리기도 하고, 합천의 함벽루를 들러 「南亭次許公簡韻」을 지을 뿐이었다.⁴⁰⁾

조선 말기에 李種杞(晩求, 1837~1902)가 나타나 퇴계학의 보수적 경향

38) 曹植, 「題鄭思玄客廳」(『南冥集』 卷1, 『韓國文集叢刊』 31, 475쪽), “伽倻故國山連冢, 月器荒村亡且存.” 『晉陽鄭氏世譜辨破錄』 「月潭先生實記」에 의하면 鄭師賢이 “世事琴三尺, 生涯屋數椽. 誰知真境樂? 秋月照寒淵.”이라는 精舍原韻을 짓고, 이에 대하여 鄭述와 李楨이 차운시를 지었으며, “君子樂幽獨, 茅齋八九椽. 袖琴徽軫足, 氷月掛天淵.(鄭述)”와 “幽人居實地, 治玉竹爲椽. 道味琴成趣, 襟懷月在淵.(李楨)”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寒岡集』과 『龜巖集』에는 이들 시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39) 曹植, 「竹淵亭次文老韻」(『南冥集』 卷1, 『韓國文集叢刊』 31, 475쪽), “卮水遙從百里流, 洛神還與女深幽.”

40) 이황의 남도여행과 이에 따른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鄭羽洛, 『退溪先生』, 國際退溪學會大邱·慶北支部, 2007을 참고 바란다.

을 충실히 계승하기도 하지만, 고령지역은 퇴계학에 비해 남명학이 강세를 띠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이황과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신 선비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裋紳(洛川, 1520~1573)과 吳澐(竹圃, 1540~1617), 그리고 金沔(松庵, 1541~1592)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陶山及門諸賢錄』이나 『德川師友淵源錄』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로, 이른바 퇴남학을 회통한 측면이 있다. 김면의 경우 11세에 이황을 찾아 『대학연의』를 배우고, 21세에 남명을 찾아 삼가의 토동을 방문한다. 배신과 오운의 경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가) 남방의 학자는 퇴계와 남명의 시대에 가장 성대하였다. 일찍이 뒤를 이어 우뚝하게 스스로 유속에서 빼어난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雷龍門下의 선비임을 알 수 있고, 진실하게 자취를 따르며 과시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아 퇴계의 풍모와 학문을 얻은 것은 낙천선생 裋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할 뿐이다.⁴¹⁾

(나)-1. 도는 退陶를 사모했고 학문은 山海를 으뜸으로 삼았으며, 글씨는 왕희지와 조맹부를 따랐고 시는 소식과 황정건을 모범으로 하였다.⁴²⁾

(나)-2. 산해당에 오르고 퇴도실로 들어갔네. 나아가는 바가 정대하였고 학식이 명확하였다네.⁴³⁾

(가)는 李源祚(凝窩, 1792~1872)가 배신을 퇴남학의 회통자로 평가한 부분이다. 즉 그는 流俗에 물들지 않고 우뚝이 빼어난 조식의 제자였으며, 진실한 자세로 과시하지도 어기지도 않는 이황의 제자였던 것이다. 이 같은 배

41) 李源祚, 「洛川先生文集序」(『洛川先生文集』), “南方學者, 最盛於退溪·南冥兩先正之世, 早定脚跟, 卓然自拔於流俗, 不問可知, 爲雷龍門下士, 而恂恂途轍, 不矯不循, 兼有得於陶山風旨, 若洛川先生裋公, 是已.”

42) 賜祭文(『竹圃全書』, 399쪽), “道慕退陶, 學宗山海, 筆追王趙, 詩模蘇黃.”

43) 趙亨道, 「士林祭文」(『竹圃全書』, 399쪽), “升山海堂, 入退陶室. 趨向正大, 學識端端.”

신의 회통성은 허목이 쓴 행장에서 나타난다. 허목은 여기에서 배신을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회통한 이로 평가하였던 것이다.⁴⁴⁾ (나)는 제문에서 당대인이 吳澐(竹牖, 1540~1617)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알게 한다. 특히 '升山海堂, 入退陶室'이라는 언명은 그의 학문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⁴⁵⁾ 즉 이들은 학문자세와 현실인식에 대하여 이황과 조식의 자세를 본받으면서 때로는 성리학적 깊이를, 때로는 현실비판과 의병활동으로 퇴남학의 회통적 측면을 나타냈던 것이다.

요컨대, 강안학에는 기령학과 퇴남학의 회통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특성은 고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었다. 기호학과 영남학의 경우는 여타의 강안지역과 마찬가지로 영남학적 풍토 속에서 기호학을 수용한다. 그러나 고령의 경우 기령학의 회통은 극히 미약하다. 이에 비해 퇴남학의 경우는 배신·오운·김면 등에게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이황과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시며 진실한 학문자세를 배우면서도 현실주의적 자세를 공유하고자 했다. 이 같은 강안학의 특성이자 고령 유학의 중요한 일 부면인 회통성은 성리학에 대한 탐구와 의병활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3) 실용성—博學에 바탕 한 실천정신

강안학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로 실용성을 들 수 있다. 민중의 삶이 강을 무대로 형성되면서 수로를 통해 물류가 운반되고 사람들은 또 이를 통해 여행하기도 했다. 즉 영남인들은 나루나 강, 그리고 강안을 배경으로 하

44) 許穆, 「行狀」(『洛川先生文集』 卷2, 張4-5), “先生既弱冠, 初見南冥先生, 後從李先生於陶山, 得聞古人之旨, 學既通, 與金範·李濟臣, 講諸生序齒之禮曰, 太學禮義相先之地, 而長幼無序無義.”

45) 오운이 말년에 『東史纂要』를 저술하면서 『東國通鑑』이나 『東國史略』 등 우리의 역사서를 참고하면서도 『退溪集』과 함께 『南冥遺稿』를 특별히 제시한 것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여 그들의 일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강이 이처럼 생민의 현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강안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사상기반에 실용성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실용성이 생활현장에 적용되면서 실천력을 확보하게 된다. 소극적으로는 灑掃應對 등의 일상성으로, 적극적으로는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하는 실천성으로 나타났다.

강안학에 보이는 실용주의적 태도는 실학적 측면과 밀착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실학이 실용성을 담보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실학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고, 당대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다. 성리학이 虛無寂滅之教의 老佛學을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실학이라 한 것에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⁴⁶⁾ 그러나 성리학이 관념 일변도로 흐르면서 현실 응전력에 문제가 생기자 조선 후기에는 이것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학문적 문제의식을 현실에 둔 실학이 거듭 강조되었다. 이 같은 실용과 실천을 담지한 학문경향이 강안지역 사람들에게 충실히 반영되었던 것이다.

강안지역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구체적으로 박학풍을 통해서 나타난다. 강의 상류에서 보이는 성리학적 순수성보다 학문에 대한 개방적 입장에 선 현실주의적 측면을 강조한다. 성주지역의 정구가 현실에 소용되는 다양한 서적을 찬술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그는 『家禮輯覽補註』와 『五先生禮說分類』와 같은 禮書, 『心經發揮』나 『中和集說』과 같은 심학서, 『昌山志』나 『咸州志』와 같은 地志, 『古文會粹』나 『朱子詩分類』와 같은 문학서, 『歷代紀年』이나 『治亂提要』와 같은 역사서, 『醫眼集方』이나 『廣嗣續集』과 같은 의서 등 전방위적인 박학풍의 학문경향을 보였던 것이다.⁴⁷⁾

46) 예컨대, 朱熹(晦庵, 1130~1200)가 『중용』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처음에는 한 이치를 말하였고, 가운데에서는 흩어져 만사가 되었고, 끝에는 다시 합하여 한 이치가 되었다. 이것을 풀어놓으면 우주에 가득차고 거두어 들이면 물러가 은밀한 데 감추어져서 그 맛이 무궁하니 모두 實學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박학풍은 상주의 無知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던 蔡得沂(雩潭, 1605~1646)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그는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장년 이후 상주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經史百家에 통달하였으며, 역학·지리·천문·복서·음률·병서 등 현실에 소용되는 모든 학문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박학풍은 한말의 밀양지역 학자 盧相稷(小訥, 1855~1931)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이황이 편집하고 정구가 간행한 『고경중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기 수양을 철저히 하면서도, 박학풍에 입각하여 「克己齋學約」·「沃野面講約契立議」·「門黨約束」·「儀契約」 등 행동의 준칙들을 요목화하는 등 실천적 실용학풍을 굳건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역대의 曆法을 정리한 「曆攷」를 비롯해서 예학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深衣考證」이나 「歷代國界攷」 등을 저술하여 현실에 대한 학문적 밀착도를 더욱 높였다.⁴⁸⁾

강안지역의 실용학풍은 결국 조선후기 실학을 도인하는 역할을 했다. 두루 알려진 것처럼, 정구의 제자 허목을 통해 이어지는 근기남인의 실학연원이 바로 그것이다. 정구는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동시에 이어받았지만, 조식의 노장풍이나 이황의 리기설을 동시에 거부한다. 나아가 실용학풍을 구축하여 이를 허목에게 전함으로써 이익, 안정복, 황덕길, 허전 등에게로 이어 소위 근기 실학을 성립시킨다. 노상직은 이 같은 연원과 흐름을 물줄기에 비유하여 ‘檜淵의 물이 漣川으로 흘러 瞻星浦로 들어오고 廣陵을 돌아 斗湖에 이르러 冷泉에 모였다. 冷泉은 나의 스승 許文憲公이 도의를 강론하던 곳’⁴⁹⁾이

47) 權文海(草澗, 1534~1591)의 경우 본고에서 설정한 협의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예전 역시 상주와 밀착되어 있는 강안지역이다. 주지하듯이 그의 『대동운부군옥』은 임진왜란 이전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을 방대하게 수집한 백과사전으로 박학풍을 가장 잘 나타낸 저작물이다. 강안학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실용성이 담보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48) 鄭羽洛, 「嶺南儒學的 傳統에서 본 小訥 盧相稷 學問의 實踐的 局面들」, 『南冥學研究』 24,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2007, 311쪽.

라 표현한 바 있다.

상주에서 밀양으로 이어지는 강안지역의 실용학풍이 고령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령지역의 경우에도 박학풍에 기반 한 실천적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오운은 『朱子文錄』을 만들어 주자학이 지닌 경제적인 면을 주목하였다. 즉 『주자대전』을 읽는 가운데, 주희의 封事와 奏劄 등의 글에서 ‘애군’과 ‘우국’의 뜻이 절실하니 이를 인출하여 경연에서 진강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사학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기전체와 편년체를 절충한 『東史纂要』를 저술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중국역사가 아닌 우리 역사를 알게 하며, 옛 일을 통해 현재의 일을 알게 하고, 선악의 구분과 권선징악을 보여 당시 사서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편집되었다.

고령읍 지산리에서 출생한 이황의 제자 金守雍(棄齋, 1513~1559)이 『소학』을 읽으며 灑掃應對로 향촌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려고 했던 것이나, 「藍田呂氏鄉約之義」라는 10여 조의 향약을 제정하여 상호부조를 통해 향풍을 쇄신하고자 한 것도 실용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 같은 향약은 오운의 후손인 吳慶鼎(1756~1827)이 1822년(도광 2)에 제정한 「梅村洞約」으로 이어져 동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⁵⁰⁾ 이 동약에는 부세의 공동 납부와 환난에 대한 상호부조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실용성에 바탕 한 강안학의 실천정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고령지역 선비들의 실천정신은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사적 위난을 맞아 더욱 빛을 발하였다. 오운의 경우 郭再祐(忘憂堂, 1552~1617)를 도와 군량

49) 盧相稷, 「訓蒙帖序」(『小訥集』 卷25 張1-2), “檜淵之水, 流于漣, 入于瞻星之浦, 匯廣陵, 到斗湖, 會于冷泉, 冷泉, 我先師許文憲公, 講道之所也.” 회연, 연천, 침성포, 광릉, 두호, 냉천은 각각 정구, 허목, 이익, 안정복, 황덕길, 허전이 거주하던 곳의 지명 및 시내명이다.

50) 이에 대해서는 우인수의 「고령 매촌동약의 특징과 동민의 결속」(『고령문화사대계』① 역사편, 고령군대기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에 자세하다.

과 전마를 조달하고, 金誠一(鶴峯, 1538~1593)이 조유사로 부임해 왔을 때, 그를 도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⁵¹⁾ 郭超(禮谷, 1531~1593)·趙宗道(大笑軒, 1537~1597) 등과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했다.⁵²⁾ 또한 朴而章(龍潭, 1547~1622)과 金沔(松庵, 1541~1593) 등은 합천과 고령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국난극복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김면은 고령에 거주하고 있었던 朴廷璠, 金澮, 朴廷琬, 金應聖, 鄭以禮, 李承, 李弘宇 등과 함께 많은 무공을 세웠다. 그의 줄기를 보자.

(가) 김면은 선비로서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싸워 공이 있었기 때문에 발탁하여 병사로 삼아 여러 군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善山으로 진격하니 주둔한 적이 날마다 조금씩 퇴각하여 위축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전염병으로 죽었다. 김면은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 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떠돌며 굶주려도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충성을 칭송하였다.⁵³⁾

(나) 節度使 金松庵 沔이 軍中에서 사망했다. 松庵은 巖穴에서 병을 다스리면서 늙어갈 계책을 세웠지만 국가가 멸망할 위기를 만나 분연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어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토벌했다. 그렇지만 단지 몇 고을만 수복하여 뜻을 이루지는 못함이 있었는데 사망하고 말았다. 이른바 군대를 내어 승첩을 못 거두고 몸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니, 아! 슬프구나.⁵⁴⁾

51) 吳澣, 「與金鶴峯書」(『竹隔集』 卷3 張8) 참조. 여기서 오운은 김성일에게 편지하여 삼가현에 조유사의 지휘소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삼가가 경상도의 중간쯤 되기 때문이다.

52) 鄭慶雲, 『孤臺日錄』 1593년(癸巳), 2월 15일조, “吳判校澣·郭草溪超·趙丹城宗道·金學瑞廷龍·成正字安義, 共會于郡, 以議天兵支持之事.” 1593년(癸巳), 5월 6일조, “吳判校澣·趙縣監宗道, 出通文于列邑, 以迎餉天兵故也.”

53)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25年 12月 丁亥條, “沔以文士, 起義兵, 屢戰有功, 擢爲兵使, 督諸軍, 進臨善山屯賊, 日頗退縮, 未幾以羸疫死. 沔自起兵, 不離行陣, 妻子在近地, 流離飢餓, 一不相見, 人稱其忠誠焉.”

54) 鄭慶雲, 『孤臺日錄』 1593년(癸巳), 3월 13일조, “節度使金松庵沔, 卒于軍中, 松庵,

(가)는 『조선왕조실록』에, (나)는 정경운의 『고대일록』에 수록된 줄기이다. 이에 의하면 김면이 우국충정으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했음을 칭송하는 한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죽고 말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김면은 인근의 정구, 이기춘, 정인홍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남명학의 사회적 실천정신을 현실에 충실히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계, 우척현, 거창, 성주 등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초기에는 소규모로 활동을 하다가 후기에는 경상우도 의병을 총괄하기도 했다. 그가 경상우도 의병도대장이 되고 이후 경상우병사가 되었던 사실은 바로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⁵⁵⁾

강안학의 실용성은 박학적 학풍에 기반하여 사회적 실천성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고 하겠다. 남명학이 지닌 학문적 영향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겠지만 강의 연안이라는 실용적 문화풍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상주지역의 정경세가 국방에 대하여 自強의 논리를 전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는 節用과 治兵, 그리고 安民을 상소할 때마다 급무로 강조하면서 강한 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일반성이 강안지역에는 있었고, 고령지역 역시 강안학의 특징적 국면 속에서 오운과 같이 역사를 주목하기도 하고, 김면과 같이 의병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도 했던 것이다.

4) 독창성—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강안지역을 중심으로 사림파가 형성되고 발달되었다. 16세기를 거치면서

保病巖穴以爲終老之計，而值國家危亡，奮不顧身，提兵討賊，只復數邑，有志未就而卒，所謂出師未捷，身先死者也。嗚呼！哀哉。”

55) 김면의 의병활동과 임진왜란 시기 고령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고령지역의 의병운동과 의미」(『고령문화사대계』① 역사편, 고령군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참조.

강을 좌우로 하여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학파는 공존과 경쟁관계를 동시에 유지하였다. 이황과 조식이 표면적으로는 '神交'로 인정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상호간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 같은 긴장과 경쟁은 그 문하생들 사이에서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주지역의 정구는 퇴계학과와 남명학을 넘나들며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였고 이는 강안학의 중요한 특성인 회통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강안지역에는 실용학풍이 있어 『읍지』 등의 지방사나 민족사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강안학은 회통성이나 실용성에서 더욱 나아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이는 강안학이 기령학과 퇴남학을 회통하면서도 독자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 지역의 학문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퇴계학과 남명학을 회통하면서 실용주의적 측면을 보강한 정구의 학문이 김해의 허전을 거쳐 밀양의 노상직에게 전수되는 것도 이 지역 학문경향의 중요한 부면이지만, 상주·선산·성주 지역에서 독특한 이론을 개발하여 강안학의 독창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은 이 지역의 유학적 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盧守愼(蘇齋, 1515~1590)과 張顯光(旅軒, 1554~1637), 그리고 李震相(寒洲, 1818~1886)이 바로 그들이다.

상주의 노수신은 金世彌(十淸軒, 1473~1533)과 洪仁祐(耻齋, 1515~1554)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초기 양명학자다. 그는 羅欽順이 지은 『困知記』의 영향을 받아 理氣一物說, 人心道心體用說, 육망궁정설 등을 대체로 긍정했다. 「人心道心說」과 「困知記跋」 등을 쓴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특히 「곤지기발」에서 '내가 늦게 『곤지기』를 얻어 보니 그 말이 正大하고 精微하여 발명하지 못한 것을 많이 발명하여 程朱의 문에 커다란 공이 있었다'⁵⁶⁾라고 한 바 있다. 李植(澤堂, 1584~1647)은 이에 대하여, 노수신은

당시 선비들에 의해 이황보다 더 큰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며, 유배지에서 비로소 나흠순의 『곤지기』를 읽으며 사상의 혁신을 꾀했고, 이 책이 지극히 정밀하여 정주학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설에 기초하여 「인심도심설」의 주석을 개작하고 또한 『大學章句』를 개정하였는데 모두가 육상산과 왕양명의 학설이었다⁵⁷⁾고 했다.

노수신은 이처럼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李恒(一齋, 1499~1576), 盧禎(玉溪, 1518~1578), 金麟厚(河西, 1510~1560), 이황 등에 의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황은 노수신에게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시로 그의 학문이 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황은 자신의 이 같은 생각을 제자들에게도 언급한 바도 있다. 李德弘(良齋, 1541~1596)에게 편지를 보내 노수신을 들어 象山의 견해를 묵수하여 매우 격정스럽다⁵⁸⁾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당대인들이 노수신을 어떤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최근에 발견된 노수신의 『大學集錄』이 주희의 格物致知說을 부정하는 선유들의 대학설을 모아 편집했던 책⁵⁹⁾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학문적 주안점이 어디에 귀착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선산의 장현광은 노수신의 理氣一物說과 人心道心體用說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의 理氣經緯說은 바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련된 것이라 해도

56) 盧守愼, 「困知記跋」(『蘇齋集』 卷7, 『韓國文集叢刊』 35, 214쪽), “守愼, 晚得困知記, 見其言正大精微, 多發未發, 大有功於程朱之門.”

57) 李植, 「追錄」(『澤堂先生別集』 卷15, 『韓國文集叢刊』 88, 524쪽), “蘇齋自少厲志苦學, 祖述靜菴, 聲名高於退溪, 及在海中, 雖不廢學, 憂愁之餘, 詩酒遣懷. 始讀羅靜庵困知記, 以爲廣大精微, 不下程朱, 用其說, 改作人心道心傳註, 又改定大學章句, 其言皆陸·王意也.”

58) 李德弘, 「溪山記善錄」下(『良齋集』 卷6, 『韓國文集叢刊』 51, 91쪽), “盧蘇齋(名守愼, 字寡悔), 象山之見, 甚爲懼也.”

59) 이에 대해서는 신항림, 「蘇齋 盧守愼의 공부론에 나타난 陽明學」(『한국사상사학』 24, 한국사상사학회, 2005), 283~285쪽 참조.

과언이 아니다. 장현광의 학문적 경향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황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효종 1년 5월 1일에 경상도의 진사 申碩亨(稼亨, ?~?) 등 40여 인이 연명으로 상소를 한 바 있다. 여기에 의하면 장현광은 『周易』에 조예가 깊어 사류들로부터 오랫동안 추앙을 받아왔으며, 그가 지은 經緯之說은 理氣를 중횡으로 극론한 것으로 모두 이황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이이와 부합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다.⁶⁰⁾

장현광이 道一元論에 바탕을 둔 理氣經緯說을 강조하자 영남의 퇴계학과는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柳元之(拙齋, 1598~1678), 李槩(活齋, 1613~1654), 李玄逸(葛庵, 1627~1704) 등이다.⁶¹⁾ 이들은 장현광의 리기설이 이이의 기발일도설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퇴계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에 따르면, 리와 기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장현광의 리기경위설은 영남학과의 중요한 일원이면서도 리기의 차별성에 주목하는 이황의 그것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장현광은 강안지역에서 독창적인 학설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주의 이진상은 ‘理發一途說’과 ‘心則理說’로 이 지역의 일원론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강안학의 독창성을 극대화시켰다. 이 같은 그의 논리는 이황의 心合理氣說을 주리적 측면에서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璞玉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돌[기] 속에 있는 옥[리]이 박옥의 본래면목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월형을 받을지언정 옥을 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리의 주재성에 주목한다. ‘주재하는

60)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5月 1日(癸丑)條 참조.

61)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금장태, 「졸재 유원지의 경학과 성리설」(『퇴계학과와 리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설석규, 「활재 이구의 이기심성론 변설과 정치적 입장」(『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유권종, 「갈암의 여헌 성리설 비판 고찰」(『한국유교사상연구』 27, 한국유교학회, 2006)에서 이루어졌다.

것은 리'이고 '작용하는 것은 기'⁶²⁾라고 한 언명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의 주재성을 리로써 설명하려고 했던 이진상의 '심즉리설'에 대하여 퇴계학파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7년 『한주문집』이 도산서원에 전해졌을 때 이진상의 理學을 僞學으로 몰아 환송하고, 1902년 朴海齡 등은 이진상의 학문을 이단으로 보고 상주향교에서 『한주문집』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황의 후손 李晩寅(龍山, 1834~1897)은 논리를 갖추어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즉 理發만 있고 氣發이 없다는 것은 이이가 氣發만 있고 理發은 없다고 말한 것을 반대하려고 하다가 지나침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⁶³⁾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노수신이나 장현광이 그러했듯이 퇴계 근본주의자들에게는 하나의 이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강안학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⁶⁴⁾

고령지역의 경우 리기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전개한 사람은 한말의 李種杞(晩求, 1837~1902)이다. 그러나 그의 리기론은 주희와 이황의 이론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⁶⁵⁾이었기 때문에 독창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노수신의 제자 박이장을 통해 양명학의 수용 가

62) 李震相, 「答郭鳴遠疑問」(『寒洲全書』 卷40), “太一將分, 理生氣, 衆萬交運, 理乘氣, 主宰在理, 作用在氣.”

63) 이와 관련한 논의는 홍원식, 「한주의 성리설과 계승」(『한주 이진상 연구』, 역락, 2006) 참조.

64) 강안학에 보이는 독창성은 유성룡의 제자인 정경세와 그의 학단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남명학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시에 안동·예안권의 월천·학봉학맥에 대해서도 독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조식에 대해서는 『참동계』와 『음부경』에 대한 탐독과 정몽주 인식을 비판하였고, 안동·예안권의 학자들과는 달리 李爾瞻(觀松, 1560~1623)에 대한 주별 상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190~214쪽에서 이루어졌다.

65) 이종기의 성리사상에 대해서는,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性理思想」(『철학연구』 89, 대한철학회, 2004)에 자세하다.

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 학문의 독창성 부분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박이장은 23세 되던 봄에 덕산으로 들어가 조식을 배알하고, 28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노수신에게 배움을 청한다. 당시 노수신은 그의 양명학적 주지가 담긴 「人心道心辨」을 강론하였다. 『연보』에 의하면 노수신이 李彦迪(晦齋, 1491~1553)의 『大學章句補遺』를 講定하고 「인심도심변」을 찬술하였는데 박이장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박이장에게 주었다.

學必貴傳習	배움은 반드시 전습을 귀하게 여기고,
喻之鳥數飛	깨우치기를 새가 자주 나는 듯이 하네.
非無豪邁質	호매한 자질이 없지 않아,
存養似君稀	존양을 그대와 같이 하는 이 드물구나. ⁶⁶⁾

노수신은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에서, ‘나는 주자의 『대학장구』를 받아 신명처럼 받들고 있지만 유독 강령과 조목 외의 傳에 무슨 의의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으며, 또한 격물치지에 대한 元傳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어찌 알겠는가?’⁶⁷⁾라면서 주자의 分章과 補亡傳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서 나아가 인심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인심과 도심을 이해하였으며,⁶⁸⁾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그를 양명학자로 보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위의 작품을 볼 때, 1구의 ‘傳習’은 王守仁(陽明, 1472~1528)의 『전습록』에서의 ‘전습’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구의 ‘存養’ 역시 양명학적 심성론에 입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6) 朴而章, 『龍潭集·人』 卷5 張4.

67) 盧守愼,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蘇齋集』 卷7, 『韓國文集叢刊』 35, 215쪽), “守愼自受讀章句, 奉之如神明, 獨未解綱條外傳有何義, 又焉知格致元傳有不亡?”

68) 이에 대해서는 신항립, 「노수신의 인심도심설에 내포된 육왕학의 심성수양론」,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지평』, 소명, 2005 참조.

고령지역의 독창성은 뚜렷이 부각되지 않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李寅梓(省窩, 1870~1929)에 의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⁶⁹⁾ 그는 고령의 館洞 출신으로 가학으로는 성주의 정구와 연원이 닿아 있지만, 이진상의 학문적 중지를 충실히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이인재는 전통적인 유자적 모습을 지니면서도 서양의 고대철학을 적극 연구하여 『古代希臘哲學攷辨』이라는 책을 편찬한다. 이는 당시로서 가장 체계성을 갖춘 업적이었다. 이인재는 이를 통해 유학과 서양철학은 본질적으로 상호 소통한다고 보고 유교의 개혁사상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유학은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創新할 수 있었다.⁷⁰⁾

강안지역은 회통성에서 보여주던 것과 달리 조식의 학설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여 이황의 학설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즉 독자성을 갖고 독창적인 학설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 선두에 노수신이 있었다. 그는 「人心道心辨」과 「執中說」을 중심으로 陸王學을 수용하는 입장에 섰다. 이 때문에 노수신은 당대의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강안지역의 선비들은 오히려 노수신의 학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장현광이 그 대표적이다. 그는 理氣經緯說을 제시하면서 일원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이 일원론은 강안지역의 이진상에게서

69) 이인재에 대해서는, 김종석, 「성과 이인재의 유교개혁사상」(제2회 고령문화사 학술대회 『고령지역 사상의 특징과 사적 전개』, 2008) 참조.

70) 고령지역의 독창성은 문학방면에서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 지역 출신으로 조선후기에 특별하게 활동을 한 申維翰(淸泉, 1681~1752)이 대표적이다. 이설이 있기는 하나 신유한은 밀양에서 서얼로 태어났으나 고령의 申泰始에게 양자로 들어간 후 고령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1713년(숙종 39, 33세) 과거에 급제한 후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가서 문명을 날린다. 그는 유교에 중심을 두지만 도불교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도 개성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상이 이 같았으므로 그의 작품세계는 독창적 성취가 가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유한에 대해서는, 鄭羽洛, 「申維翰의 文學思想과 그 詩世界의 意味構造」, 『退溪學과 韓國文化』 41,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 참조.

도 분명히 나타났다. 이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고령 유학을 보면, 노수신의 제자 박이장을 중심으로 양명학이 다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면에 있어 어떤 특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0세기 초에 이 인제가 나타나 유학적 소양 위에 서양철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고령유학의 독창성은 빛을 발하게 되었다.

4. 고령 유학의 특징과 전망

강안학의 특징적 국면이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라면 고령 유학은 이 세 특성 속에서 어떤 역학구도로 존재하는가? 이에서 나아가 고령 유학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나 미래를 위하여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과제이다. 첫 번째 문제가 강안학의 전반적인 성격 속에서 고령 유학의 특성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고령 유학이 우리의 현재적 삶과 관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강안학이나 고령 유학이 지닌 미래적 가치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남명학의 저류와 그 발전

강안학에는 다양한 성향이 공존한다. 어쩌면 다양성이 강안지역 최대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강안학의 특성이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성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는 중간자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 이황과 조식을 넘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황의 제자인가, 아니면 조식의 제자인가를 의심받은 것이 그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은 소통하고 화

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강안지역의 선비들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그렇다면 사림과의 발달을 이끌어낸 강안지역의 학문에 내재한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 어떠한 역학관계를 지니며 고령의 유학세계를 구축하였던가? 이것을 밝히면 고령 유학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회통성의 경우, 고령은 기령학보다 퇴남학의 소통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이 지역에도 송시열 등을 배향한 서원이 있었지만 영남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에 바탕하여 기호학을 받아들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퇴남학에 대한 소통성은 강하게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裴紳과 吳灃, 그리고 金沔이다. 鄭師賢과 같이 조식 쪽으로, 金守雍과 같이 이황 쪽으로 밀착된 인사가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성향이 한결같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퇴남학의 회통성이라는 강안학의 주요 특성을 고령지역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실용성의 경우는 향약과 의병활동이라는 실천정신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 다. 예안현감을 지낸 바 있는 이황의 제자 김수옹이 향약을 제정하여 향촌의 상호부조를 도모한 것이나, 퇴남학을 회통한 오운의 후손 오경정이 「梅村洞約」을 만들어 부세와 환난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한 것이 모두 그것이다. 의병활동은 임진왜란을 경유하면서 김면과 박정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역은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중에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는 곳이기도 하고,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는 조선군과 명군의 주둔지이기도 했다. 낙동강 연안이라는 지리적·사상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고령지역의 실용주의적 유학정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독창성 역시 강안학에는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상주의 노수신, 선산의 장현광, 성주의 이진상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강안지역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강좌와 강우지역의 중간에서 이황 및 조식과는 또 다른 세계관

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학 내에서는 이채를 발하였던 것이다. 고령 지역의 경우 노수신의 제자 박이장이 있어 양명학적 맥락을 다소 이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이인재가 나타나 서양철학을 유교에 접목시키면서 유교의 개혁사상을 천명하였다. 이밖에도 문학사상적 측면에서 신유한이 있어 독창적 세계를 구현하였다.

강안학의 전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 유학은 퇴남학의 회통성과 실천정신에 입각한 실용성이 부각되고 비교적 늦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독창성 역시 뚜렷이 감지된다. 즉 회통성, 실용성, 독창성이라는 강안학적 보편성이 고령지역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셋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회통성의 경우 기령학에 비해 퇴남학의 회통이 강조되고, 독창성의 경우 유학이 종말을 고하는 서구문명 도입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용성을 이황과 조식의 학문에 적용시켜 볼 때, 고령 유학은 남명학에 더욱 경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조반정과 더불어 남명학이 표면적으로 거의 몰락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지역은 퇴계학보다 남명학이 강세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남명학이 고령지역에서 부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식의 지역적 근접성과 함께 고령 지산동 출신의 정사현이 조식의 매부가 되면서부터이다. 조식은 이 때문에 자주 고령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사현의 객청에서 시를 짓기도 하고, 박윤이나 윤규 등 고령의 사림들과 친분을 두터이 하기도 한다. 배신과 김면 등 이 지역 출신의 제자들도 여럿 두게 된다. 더욱이 조식 사후에는 남명의 문하생들이 모여 낙동강에 배를 띄워 시회를 열기도 하고, 조식을 문묘에 종사하기 위한 疏廳을 고령에 설치하기도 한다. 다음 자료를 보자.

(가) 내가 돌아간 때는 마침 무자(1588년) 7월 15일이었는데 낙동강에 배를 띄워 물을 거슬러 올라왔다. 하늘이 높고 물은 맑았으며 단풍과 국화가 언덕에 가득하였고 하얀 달이 빛을 날려 흥취가 아득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서로 진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평일 상종하는 士友들이 오히려 많이 와서 강가에 나와 이별을 하였는데, 술잔을 잡고 시를 짓기도 하고 혹은 노래를 불러 회포를 말하기도 하였다. 또 지리산으로 가는 李季郁(起春)과 朴德凝(愷)을 만났는데, 산으로 가느라 행색이 스스로 달랐지만 외형을 잊고 산천에 회포를 붙여 그 즐거워할 바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었다.⁷¹⁾

(나) 만력(1617년) 가을 8월에 남명선생의 문묘중사를 청하는 소회가 고향에서 열렸는데, 모인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정선생께서 상소문을 지으시고는 진사 李서(李西)의 이름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외람되게도 擇疏를 맡아 마침내 선생의 상소문을 뽑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新安으로 가서 선생을 뵈게 되었는데, 선생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들여 앉게 하시고 병으로 일어나 인사할 수 없음을 미안해 하시고는 두터운 예와 따뜻한 말로 대접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중사를 이제야 비로소 소청하게 되었소만 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어찌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겠소?’ 라고 하셨다.⁷²⁾

(가)는 고문서의 형태로 전하는 『洛江分韻』의 서문 가운데 일부로, 정구의 『함주지』 서문에도 삽입되어 있다. 당시 정구는 1588년(55세) 7월에 함안군수를 그만두고 낙동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와 사우들과 함께 ‘萬頃蒼波欲

71) 鄭述, 「洛江分韻序」, “余歸適在戊子中元之日, 泛舟東洛, 泝流而來. 天高水清, 楓菊滿岸, 素月揚輝, 思致渺然, 不許郡人之相送, 而平日相從士友, 猶多來別於江上, 把酒賦詩, 或詠歌以道其懷. 又值李季郁, 朴德凝頭流之行, 尋山問路, 行色自異, 而其忘形寓懷, 樂其所以爲樂, 則不可謂不同也.”

72) 河愷, 「新安語錄」(『滄洲集』卷2 張7-8), “萬曆丁巳秋八月, 請南冥先生從祀, 疏會于高靈, 會者, 幾數百人. 鄭先生製疏, 代門人進士李서名以送, 愷忝擇疏, 遂用之. 因新安上謁先生, 先生卽令迎入引坐, 辭以病未能起居迎揖, 優禮以待, 溫言以接, 曰 我先生從祀, 今始疏請, 然, 得請, 何可必也?”

暮天'을 분운하여, 고령의 쌍림면 開山浦에서 멩드미 四望亭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회를 열었다. 이때 지리산으로 유람을 가던 李起春과 朴愷도 참가하였는데 도합 7인이었다. 정구를 비롯한 李弘量(六一軒, 1531~1592), 李弘宇(茅齋, 1535~1594), 金沔(松庵, 1541~1593), 李起春(玉山, 1541~1597), 朴愷(大庵, 1549~1607), 李承(晴暉堂, 1552~1598)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조식의 문인이며 고령인이 4명이나 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지역과 남명학과의 결합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는 河愷(滄洲, 1563~1624)이 기록한 「新安語錄」의 일부로 소청을 고령에 차리고, 여기서 정구의 상소문이 채택되었던 사실을 전한다. 1610년 이황 등 5현이 문묘에 종사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남명학파에서는 꾸준히 조식의 문묘종사운동을 벌이게 되고 1617년에는 고령에 그 소청이 설치되었다. 고령에 조식의 문묘종사를 위한 소청을 차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 지역이 강의 좌우를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남명학과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근의 新安, 즉 성주에는 정구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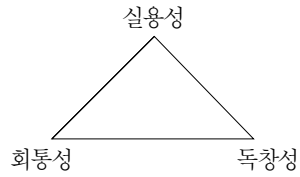
앞서 살핀 것처럼 고령 유학에 강안학적 특징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 가운데 퇴남학의 회통성과 실용성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남명학맥에 더욱 경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고령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완충지이면서도 남명학의 자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하면서도, 조식의 문묘종사를 위한 소청을 고령에 설치하면서 선비들이 남명학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던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상주 등 낙동강의 상류지역이나 밀양 등 낙동강의 하류지역과는 변별되는 것이어서 특기할 만하다.

2) 회통·실용·독창성의 상생구도

영남은 ‘嶺之南’으로서의 동질성도 확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강을 중심으로 하여 좌도와 우도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왔다. 이것은 영남지역을 양분하여 이해함으로써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치사상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동서봉당 때에는 함께 동인으로 귀속이 되었으나 이후 강좌 지역에서는 퇴계학을 바탕으로 한 남인이, 강우 지역에서는 남명학을 바탕으로 한 북인이 거점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⁷³⁾ 이 과정에서 강안지역에 있던 사림과 그 후예들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거듭 받아오게 되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고 강안지역이 지닌 사상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영남학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신개념이 강안학이며 고령 유학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한 시론이 된다.

강은 분리와 갈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낙동강 연안지역이면서 그 종류에 해당하는 고령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영남문화를 소통과 화합의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 지역은 무한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강안학의 특성을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가설 하에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에 입각하여 고령 유학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성과 실천정신에 바탕한 실용성이 강조되고, 독창성은 서양철학과 접목되면서 그 빛을 발하였다. 이를 인식하면서 다음 그림을 보자.

73) 당색의 측면에서 동서봉당 때에는 영남사인들이 東人으로 화합하지만, 좌도의 경우 南人으로 단일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우도의 경우 동인에서 南·北人으로, 다시 大北으로 분화되었다가 인조반정 이후에는 南人과 西人으로 양분된다.



회통성은 소통과 화합을, 독창성은 개성과 창조를, 실용성은 일상과 생활을 지향하는 강안학의 주요 성격들이다. 강안학은 이것이 배타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성을 지니며 구조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표면적으로는 회통성과 독창성은 상호 대극점에 위치하고, 다시 실용성이 설정되어 있어 상호 배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통성이 독창성을 간섭하지 않고, 독창성 역시 회통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회통성이 모호한 성격으로, 독창성이 상대에 대한 비판적 자세로 나타날 때도 없지 않으나, 강안학은 회통을 통해 창조적 세계를, 그 독창성에 입각하여 오히려 소통과 화합을 가능케 한다.⁷⁴⁾ 그리고 이것은 강과 그 연안의 수월성에 따라 실용주의로 귀결된다.

고령 유학의 전망 또한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유학이 미래의 학문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망은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할 수 있다. 하나는 강안학적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고령 유학의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안학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고령 유학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존재방식이 그러하듯이 고령 유학 역시 강안학적 보편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령 유학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74) 성주지역 정구의 경우 퇴계학과 남명학을 보완하고 절충하는 입장이 강한 데 비해, 상주지역 정경세의 경우 남명학을 비판하면서 퇴계학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독창적 면모가 강하다. 강안학은 이 두 성향을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담아내고 있었다.

고령 유학을 강안학적 보편성에서 보면, 회통성과 실용성과 독창성이 비교적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이 셋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관계를 유지할 때 고령 유학은 더욱 발전한다. 이로 볼 때, 고령유학은 한편으로 이 세 요소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서로 다른 성향의 역동적 상생관계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고령에서 보냈던 신유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의 상상력은 고령 유학이 지닐 수 있는 역동적 상생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 유학을 강안학적 특수성에서 보면, 남명학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역동적 상생관계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회통성, 독창성, 실용성이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령 유학의 주요 특징인 실용성을 새로운 가치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고령이 남명학적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라 볼 때, 건강한 실천성을 담보한 실용주의는 고령이 사상적 근거를 갖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李翼의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방의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듯이 영남의 인심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 통일된 인심 속에서 五倫을 확인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일 것이다.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의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강안지역에 위치한 고령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문학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적 혹은 사상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5. 맺음말

본 논의는 고령 유학의 전반적 성격과 특징, 그리고 전망을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고령의 지리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江岸學’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통해 영남 유학의 성격을 시론으로 살핀 다음, 거기에 맞추어 고령 유학의 특징을 구명하는 것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았다. 이는 퇴계학과 남명학을 중심으로 영남학을 읽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나아가 한강이나 금강 등 전국적 범위의 강안학을 고령지역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강안학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江岸’이라는 용어는 영남지역의 시기문학적 특성을 살피면서 추출되어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유학사상사를 새롭게 이해하자는 쪽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즉 강좌의 퇴계학과와 강우의 남명학과로 양분되던 영남학을 강안지역의 한려학과를 다시 설정하여 소통과 화합의 영남학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이니, 강안학은 16세기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 상주에서 창원에 이르는 공간적 범위, 유학사상이라는 학문적 범위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전반을 새롭게 이해하는 구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강안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리학이 유입되었고 이후 사림파가 성장하였다. 길재나 김숙자와 김종직, 그리고 김굉필이 강안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기에 족하다. 고령지역은 김숙자가 현감직을 수행하면서 초기 사림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김종직의 후손이 살면서

사림과 着根의 한 표본이 되었다. 강안학의 특징은 기호학과 영남학, 혹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성, 박학에 바탕 한 실천정신을 지닌 실용성,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보된 독창성을 들 수 있다. 강안지역에 위치한 고령지역은 이 같은 강안학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도 고령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회통성의 경우 고령 유학은 기령학의 회통성보다 퇴남학의 회통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퇴남학의 회통성에서도 남명학 쪽으로 다소 경사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남명학의 저류와 그 발전적 면모를 통해 고령 유학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천정신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병활동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령 유학이 지닌 최대의 특징이다. 그리고 독창성은 박이장의 양명학 수용 가능성과 서양철학 도입을 통한 이인재의 유교개혁사상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며 고령 유학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 고령지역의 강안학적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 역동적 상생관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응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안학 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강안학이라는 용어가 관련 학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의 타당성 문제와 함께 개념과 범위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강안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강안학의 성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마땅하다. 이것은 본 논의에서 제시한 가설이 지닌 한계점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입각하여 강안학의 연구방향을 설정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안학의 지역별 연구이다. 강안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 유학을 다루었기 때문에 고령 유학의 특징은 일정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고령지역을 상주지역과 선산지역, 성주지역과 창녕지역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주에서 창원에 이르기까지 회통성 등의 강안학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역별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몇 개의 지역 단위로 묶어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칠 때 강안학의 특징은 보다 뚜렷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강안학의 특성별 연구이다. 우리는 앞의 논의에서 사림파의 발전과정 속에서 강안학을 보고, 여기에 바탕하여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으로 그 특성을 요약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강안학이 모두 포섭되지 않는다.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특성별로 강안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강안학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한 후, 회통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 그리고 독창적 측면을 각각 따지는 것이다. 이 역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모든 지역은 다른 지역의 문화성향을 의식하면서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때문이다.

셋째, 강안학의 학문별 연구이다. 강안학의 협의적 개념이 '16세기 이후 낙동강 연안의 유학사상'이지만 전통학문은 오늘날의 분과학문과 달리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즉 학문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안지역의 유학사상을 중심에 두면서도 문학과 역사, 혹은 불교와 민속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더욱 나아가 그 관계론적 측면에서 유학사상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강안학의 하위분류로 강안문학과 강안사학 등 여러 분과의 학문이 다시 설정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안지역의 사상사적 특징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넷째, 강안학의 역동성 연구이다. 강안학의 특성을 회통성·실용성·독창성이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분야 연구의 성과를 가장 확실히 담보하는 길이다. 예컨대 회통성과 독창성은 대극점에 자리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퇴남학으로 융합하고자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 성격이 상호 방해 혹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강안학의 다양한 특성들이 어떤 상생구도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강은 사행의 곡선을 그으며 바다로 흘러든다. 여기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개입될 수 있다. 고속도로 등의 직선이 갖는 폭력성과 비교하면 곡선은 자연스러움에 근간을 둔 생태학과 결합된다. 산이 지닌 공자의 문명의식과 결부시키면 강은 上善若水의 노장적 원시성을 지닌다. 또한 상류의 개울이 갖는 순수성과 바다가 지니는 개방성으로 상상력은 비약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곡선과 생태, 그리고 원시성은 근대학문이 지닌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다. 강안학은 현재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金沔, 『松庵遺稿』.
金宗直, 『佔畢齋集』.
盧相稷, 『小訥集』.
朴世采, 『南溪集』.
朴而章, 『龍潭集』.
裴紳, 『洛川先生文集』.
吳澐, 『竹牖全書』.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德弘, 『良齋集』.
李植, 『澤堂別集』.
李翼, 『星湖僿說』.
李俊 외, 『壬戌泛月錄』.
李重煥, 『擇里志』.
張顯光, 『旅軒集』.
李震相, 『寒洲全書』.
鄭述, 『寒岡集』.
鄭慶雲, 『孤臺日錄』.
鄭師賢, 『月潭先生實記』.
鄭在夔 편, 『蓬山浴行錄』.
曹植, 『南冥集』.
河愷, 『滄洲集』.
『高靈縣邑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權泰乙 역, 『洛江泛月詩』, 아세아문화사, 2007.

權泰乙, 「洛江詩會研究」, 『尙州文化研究』 2, 상주대 상주문화연구소, 1992.

- 금장태, 「졸재 유원지의 경학과 성리설」, 『퇴계학과와 리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金宅圭 외, 『洛東江流域史研究』,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修書院, 1996.
-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고령지역의 의병운동과 의미」, 『고령문화사대계』① 역사편, 고령군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 『낙동강유역의 사람들과 문화』, 역락, 2007.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종석, 「성과 이인재의 유교개혁사상」, 『고령지역 사상의 특징과 사적 전개』(제2회 고령문화사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8.
- 朴丙鍊, 「南冥學派와 嶺南 江岸地域 士林의 堯年적 연대」, 『南冥學報』 4, 南冥學會, 2005.
- 朴丙鍊, 「'光海君 復立謀議' 事件으로 본 江岸地域 南冥學派」, 『南冥學研究論叢』 11, 南冥學研究院, 2002.
- 薛錫圭, 「江岸學派의 실학적 풍모를 지킨 徵士-西溪 金聃壽」,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2007.
- 설석규, 「경의검의 또 다른 주인공-개암 김우평」, 『선비문화』 5, 남명학연구원, 2005.
- 薛錫圭, 「旅軒學과 江岸學」, 『旅軒學報』 15, 旅軒學研究會, 2008.
- 설석규, 「활재 이구의 이기심성론 변설과 정치적 입장」,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 신향림, 「노수신의 인심도심설에 내포된 육왕학의 심성수양론」,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지평』, 소명, 2005.
- 신향림, 「蘇齋 盧守愼의 공부론에 나타난 陽明學」, 『한국사상사학』 24, 한국사상사학회, 2005.
- 우인수, 「고령 매촌동약의 특징과 동민의 결속」, 『고령문화사대계』① 역사편, 고령군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유권중, 「갈암의 여헌 성리설 비판 고찰」, 『한국유교사상연구』 27, 한국유교학회, 2006.
- 유명기 외, 『낙동강 유역의 사람들과 문화』, 역락, 2007.
- 李東英,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 釜山大學校出版部, 1984.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性理想」, 『철학연구』 89, 대한철학회, 2004.

- 정우락, 「강안학, 하나의 영남학을 위하여」, 경북대신문, 2008년 4월 7일자.
- 鄭羽洛, 「西溪 金聃壽의 戰爭體驗과 그 文學的 對應」, 『嶺南學』 10, 嶺南文化研究院, 2006.
- 鄭羽洛, 「申維翰의 文學思想과 그 詩世界的 意味構造」, 『退溪學과 韓國文化』 41,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
- 鄭羽洛, 「嶺南儒學의 傳統에서 본 小訥 盧相稷 學問의 實踐的 局面들」, 『南冥學研究』 24,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2007.
- 鄭羽洛, 『退溪先生』, 國際退溪學會大邱·慶北支部, 2007.
- 홍원식, 「한주의 성리설과 계승」, 『한주 이진상 연구』, 역락, 2006.
- 許捲洙,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를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남명학연구』 1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Abstract

An Essay on Ganganhak(江岸學) and Goryeong Confucian Thoughts

Jeong, Woo-Lak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features of Goryeong Confucian thoughts and then prospected its future. First of all, it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Yeongnam Confucian thoughts through a new hypothesis called 'Ganganhak' based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Goryeong which is located along the shores of the Nakdong River. On the basis of this, the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ng Confucian thoughts. This process is significant in that it escaped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understand Yeongnam Confucian thoughts based on Toegyehak and Nammyeonghak and that it applied Ganganhak, that covers the entire nation including the Han River and the Nakdong River, to Goryeong region.

The term 'Gangan' was created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features of poetry literature of Yeongnam region and then employed to renew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Confucian thoughts on the region around the Nakdong river. That is, 'Gangan' was used to recreate Yeongnamhak, which had been divided into Toegye school on the left side of the Nakdong river and Nammyeong school on the right side of the river, into Hanryeo school in the regions around rivers to build communicative and cooperative Yeongnamhak. Given that the term Gangan emerged under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it can be said that Ganganhak is Confucian thoughts created in the area from Sangju to Changwon in the 16th century. If Ganganhak is further expanded, it may develop into a concept that renews the understanding of Korean studies based on rivers.

It was through regions around the rivers that Korean Confucianism was imported, and later Sarim faction also grew up. This is proved by the fact that Gil Jae, Kim Suk-ja, Kim Jong-jik and Kim Goeng-pil

pursued their studies and carried out academic activities in the regions around the rivers. Sarim faction emerged in Goryeong region while Kim Suk-ja was the country magistrate called 'Hyeongam' of Goryeong. Later, Sarim faction took root in Goryeong due to the efforts of Kim Jong-jik's descendants who settled down in the region. Ganganhak is characterized by the conciliation of Gihohak and Yeongnamhak or Toegyehak and Nammyeonghak, practicality based on wide knowledge, and creativity based on the new perception of the world. Goryeong region located around the river was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Ganganhak and had its own geographical peculiarities.

As for the conciliation, Goryeong Confucian thoughts were more conciliated with Toenamhak than with Giryonghak. Especially it was more conciliated with Nammyeonghak, a part of Toenamhak. Therefore, the features of Goryeong Confucian thoughts can be examin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ammyeonghak. Practical mind based on practicality were embodied into interests in history and Ubyeong's activities, which are the biggest features of Goryeong Confucian thoughts. With regard to creativity, Park, I-jang's possibility of accepting Wang Yang-ming School and Lee In-jae's Confucian reform through the instruction of Western philosophy can be discussed. Given all this, it is expected that Goryeong Confucian thoughts will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by maintaining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Goryeong region and building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its features, conciliation, practicality and creativity.

Key Word

Kanganhak, region around the Nakdong River, Goryeong Confucian thoughts, Gihohak, Yeongnamhak, Toegye school, Nammyeong school, Hanryeo school, conciliation, practicality, creativity

- 논문투고일 : 2008.6.4. 심사시작일 : 2008.6.13. 심사완료일 : 2008.6.20.